

제주사회복지신문

제37호
2010년 11월 1일 <월간>
www.jejubokji.net

> 발행인 : 이동한 > 편집인 : 고경윤 > 발행처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 주소 : 제주시 화북1동 1112-1 > 등록번호 : 제주라 01010 > 전화 : (064)702-3783 ~ 4 / 팩스 : (064)702-3383 > 편집디자인 : 디자인열림

사회에서 받은 사랑 '보은의 길'

춘강전 직원 참여해 평대리서 봉사활동

사회복지법인 춘강이 20년 넘게 지역사회에서 받은 지원과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봉사활동에 나서 화제가 되고 있다.

10월 23일 오전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해안가.

춘강 산하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서귀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춘강장애인근로센터, 어울림터 직원 10여명이 해안가에 방치되거나 파도에 떠내려온 나무토막, 페트병, 폐어구 등 각종 쓰레기를 수거하느라 여념이 없다. 이들이 해안가 2km 구간에서 수거한 쓰레기 분량만 1600kg. 40kg 규격의 마대 40개가 순식간에 채워졌다.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한 직원은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 좀 힘들었지만 깨끗하게 청소된 바닷가를 보니 내 마음도 상쾌하다"고 말했다.

같은 시각 평대리 공밭.



△사회복지법인 춘강 산하 모든 직원들이 10월 23일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에서 봉사활동을 마친 뒤 평대리 마을회관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일손이 부족해 콩수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일손돕기가 이어졌다. 춘강 산하 직원 80여명이 참여해 15농가에서 하루 종일 콩을 수확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난생 처음 콩수확에 나선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황현숙 사회복지사는 "처음 해보는 일이라 서툴고 몸이 고되지만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며 환하게 웃었다.

인력 지원을 받은 한 농가는 "최근 농촌에는 항상 일손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우리

부부가 며칠 걸릴 일을 직원들의 도움으로 하루에 끝낼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평대리 마을회관에서선 제주춘강의원이 노약자를 대상으로 한 내과, 재활의학과, 물리치료 관련 진료를 실시해 23명의 어르신들이 기본적인 진료와 물리치료를 받았다.

사회복지법인 춘강 양광호 사무처장은 "지역사회에서 받은 지원과 사랑을 지역사회에 환원하여 이웃과 협력하고 함께 변형할 수 있는 '나눔경영'을 적극 실천해 사회통합

에 앞장서고자 법인 산하 모든 직원이 참여하는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양 처장은 "마을에서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희망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활발히 펼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계7대 경관선정에앞장"

제주가 세계 7대 자연경관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도내 사회복지인이 팔을 걷어 붙인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는 제주지역이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도약하는 전기가 될 수 있는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투표활동에 사회복지인이 적극 참여한다고 밝혔다.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는 오는 10일 협의회 2층 삼다수홀에서 도내 사회복지직능단체와 함께 사회복지인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투표참여 캠페인 발대식을 갖고 연중 캠페인을 추진한다.

발대식에서는 결의문 낭독과 현장 투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일제 투표 참여 등의 부대행사가 진행된다.

또 캠페인을 통해 '매월 11일은 7대 자연경관 투표하는 날'을 운영하고, 이주민연성을 대상으로 고향의 친지와 친구들에게 투표참여 안내편지를 보낼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각종 간행물에 투표참여안내 홍보문을 게재하고, 공문서 상단에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문구를 넣을 예정이다.

지면소개

종합 2·3면
장애인고용장려금 호응
시설탐방-자원원

사회복지소식 4·5면
2010 청소년문화축제대단원·소식마당
월와치사업단 출범·알림마당

오피니언 6면
칼럼·시론·기고

특집 7면
희망복지 제주만들기토론회

사회복지아카데미 11월 교육 안내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요원 보수교육

일시: 11월 4일(목) 1400-17:00

내용: 인증관리사업규정 개정사항 안내 등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활용교육

일시: 11월 23일(화)~ 24일(금) 09:30-17:30

내용: 회계교육경리, 시군구보고 등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요원 양성교육

일시: 11월 30일(화) 09:00-18:00

내용: 인증관리 DB시스템 활용교육 등

장소: 사회복지협의회삼다수홀(공통)

문화바우처

문화바우처 사업은 경제적 여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공연·전시·영화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및 도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바우처(voucher)란?
일반적으로 (현금대용의) 교환권, 상품권(coupon)을 의미하며, 정부가 특정수혜자에게 교육, 주택, 의료파워의 복지서비스 구매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비용을 보조해 주기 위해 지출을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문화바우처 안내 (신청자격 및 지원범위)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공연·전시·영화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및 도서 지원
- 신청방법** 문화바우처 홈페이지 www.munhwabawuchae.kr 회원가입완료하신 후, 거주하시는 해당 지역의 프로그램 중에서 선택하여 예매 후 관람

지원서비스
문화바우처 버스 및 식사가 지원됩니다.
'문화바우처 버스'는 30인 이상, 그리고 1시간 이상의 이동거리일 경우 협의후 지원
관람하실 때 동반이 가능합니다.
정회원 중 장애인 어르신 이동화원의 경우 동반인의 관람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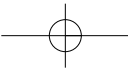
문화바우처 사업 시행기관
문화바우처 대표전화 **1588-5683** Tel. 064-724-9004 Fax. 064-748-9815

주 최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유산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총괄주관 | 사회한국문화복지협회 제주문화복지재단

후 원 | 제주문화복지재단

문화바우처 제주문화예술재단이 함께합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 일자리 창출 ‘톡톡’

제주시 관내 119개 업체에 462명 참여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이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한몫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제주특별자치도가 200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특수시책사업으로,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체가 장애인을 고용하면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9월말 현재 제주시가 관리하는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참여업체와 장애인 119개 업체에 46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99개 업체에 391명보다 20개 업체 71명이 증가한 것

이다.

고용된 장애인을 보면 1급 54명(11%), 2급 72명(15%), 3~6급 336명(74%) 등이다. 참여업체는 렌터카 등 서비스업 36곳(30%)을 비롯해 제조업 28곳(23%), 도소매 22곳(18%), 건설업 19곳(15%) 등으로 고루 분포하고 있다.

특히 취업 이후 중도퇴직자는 4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이 사업이 장애인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자활·자립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사업체에는 구인난 해소 등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장려금은 성별, 장애등급별로 차등 지원된다. 남성의

경우 매월 1급 40만원, 2급 30만원, 3~6급 20만원을 지급하고, 여성은 1급 50만원, 2급 40만원, 3~6급 30만원을 지급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사업체를 순회방문하여 적극적인 상담과 홍보로 더 많은 장애인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나갈 계획”이라며 “사업체에서도 장애인 고용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4대보험을 가입하고 장애인을 고용해 3개월 이상 경과하고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2010년 기준 85만 8990원)을 지급한 사업체가 관할 주소지 읍·면·동에 관련 신청서를 제출하면 최초 고용시점부터 소급해 지원받을 수 있다.



동거부부 12쌍 웨딩마치“행복하게 잘 살게요”

제주시와 제주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양임생)는 10월 14일 제주시 퍼시픽호텔 2층 연회장에서 어려운 가정형편 등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동거부부 12쌍의 합동결혼식을 열고 이들의 앞날을 축복했다. 이들에게는 신랑양복, 신부한복, 부케, 사진촬영, 예식장소 등이 무료로 지원됐다.

여성취업지원기관 종사자에 처우개선비 13만원 신규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전문성을 가진 우수한 취업설계사와 직업상담사를 확보하고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여성취업지원기관에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1248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비영리법인에서 운영하는 여성취업지원기관 종사자로 여성발전기본법 및 경력단절여성촉진법에 의거해 지정된

여성인력개발센터, 새일센터 등 3곳의 종사자 24명이다.

처우개선비는 종사자 1인당 월 13만원씩 4개월 간 지급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그동안 사회복지시설에만 지급하던 처우개선비를 여성취업지원기관까지 확대함으로써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일하던 종사자들의 사기와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로 기대했다.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새일센터는 제주시역 여성들의 취업난 극복을 위해 기업체와 구직자간 일자리 연계, 구직자에 대한 취업 설계, 경력단절여성 등을 위한 직업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올해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및 취업지원을 통해 587명의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제주양로원, 경로잔치 개최

제주양로원(원장 김부자)과 제주요양원(원장 월공 스님)은 10월 5일 지역사회와 사업의 일환으로 제주시 외도동 관내 지역 10개 경로당 어르신과 재가복지서비스 대상 어르신, 자원봉사자 등을 초청해 요양원 정원에서 경로잔치를 열었다.

경로잔치는 흥겨운 레크리에이션과 민속공연, 추억의 오자미던지기 등 한마당 경기 속에서 어울리며 어르신들 모두가 한마음이 되는 흥겨운 시간이었다. 행사장에는 시설 어르신들의 프로그램 작품과 어르신과 외도초등학교 어린이들이 함께 참여해 만든 원에 치료 프로그램 작품들이 전시됐다.

또 제주특별자치도여성자원봉사센터 소속 자원봉사자와 행복드림 롯데마트, 문수회, 수운교 청정봉사단에서 행사준비와 진행을 위해 많은 도움을 줬다.

장애인의 영원한 벗 ‘광돌회’ 20주년

잔잔한 감동으로 장애인의 가슴에 작은 등불을 밝혀주며 낮에는 직장인, 밤에는 천사로 거듭나는 이들, 자원봉사단체 ‘광돌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강당에서 기념식을 가졌다.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 소속으로 1990년 결성된 광돌회는 회사원, 공무원, 간호사, 학생 등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로 구성돼 현재 4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광돌회는 주 1회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학습지원과 정서지원을 하는 징검다리



리 공부방과 월 1회 장애인 가정을 방문해 주거환경정리 봉사를 지원하는 노력봉사를 20년동안 꾸준히 펼쳐왔다.

이날 행사에는 이웃과 사회를 위해 묵묵히 헌신적으로 봉사해 온 회원에게 표창과 수여와 함께 축하공연 등이 열렸다.

내년 기초수급자 2만5000명 넘을 듯

내년 제주지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가 2만5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내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도내 수혜대상은 2만4357명(1만2599가구)에서 1000명 가까이 늘어난 2만53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인 최저생계비가 5.6% 인상돼 내년도 4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월 143만9413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이후 두 번째 높은 인상률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53만2583원, 2인 가구는 90만6830원, 3인 가구는 117만3121원, 5인 가구는 170만5704원으로, 6인 가구는 197만1195

원으로 책정됐다.

현금급여기준은 3.28% 인상된 117만8496원으로 결정됐다. 1인 가구는 43만6044원, 2인 가구는 74만2453원, 3인 가구는 96만475원, 5인 가구는 139만6518원, 6인 가구는 161만454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생활지원 담당 공무원들을 통해 상담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면 매월 생계·주거비 지원은 물론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지원, 보육시설 무료 이용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빈곤층이 소외받지 않고 희망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동상담실을 운영, 생활실태조사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소득 아동 디딤씨앗 453명 참여

제주시는 저소득 아동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07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 사업에 10월 현재 453명의 아동이 참여해 월평균 96%의 적립율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은 저소득층 아동이 매월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월 3만원 한도 내에서 정부가 본인이 입금한 금

액만큼 적립해줘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보호아동, 아동양육시설 및 장애인시설에서 보호하는 만 18세 미만 아동이다.

적립금은 만 18세 이후 학자금(대학 입학금, 등록금 등), 기술자격취득비용,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다.

서호요양원개원 1주년

서호요양원(원장 윤세찬)은 10월 5일 도내 기관장 및 지역인사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 1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기념식과 서귀포함정단의 축하행사 순으로



진행됐으며, 기관발전에 기여한 공로자 및 모범직원에게 감사패 전달과 표창을 수여했다.

시설탐방

(36)자광원



자비의 빛으로 장애인 돌봐요

가을햇살과 함께 찾아간 곳은 서귀포시 대포동에 위치한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자광원** (원장 성원스님, 약천사 주지). 단일법당으로는 동양에서 제일 큰 약천사를 운영지원사로 지정,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운영한다.



자광원에 들어서자 파란 하늘, 초록색 잔디, 싱그러운 바람을 맞으며 훌라후프 운동을 하고 있는 입소자의 얼굴이 가을햇살만큼이나 밝고 평화롭다.

자비의 빛으로 세상을 밝게 비추고자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현하기 위해 2009년 12월에 문을 연 자광원. 이곳에는 현재 65세 미만 중증장애인 31명(아동 8명, 성인 23명)이 생활하고 있다. 아동들은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성인 중 3명은 어울림터에서 양초제작과정 직업재활에 참여하고 있다.

아름다운 서귀포 앞바다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곳에 위치한 자광원은 건물을 설계할 때부터 입소자들이 항상 밝은 햇살을 즐길 수 있도록 모든 주거 생활실을 남향으로 배치하는 등 입소자들이 가정과 같이 편히 머물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입소자들의 재활을 위해 ▲생활재활 프로그램(기초자립 서비스, 여가생활지도, 방학지원프로그램) ▲사회재활 프로그램(사회적응훈련, 사회통합프로그램, 동아리활동 프로그램) ▲의료재활 프로그램(물리치료, 질병치료, 건강관리) ▲영양관리 서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외에도 미술·체육활동, 중증 장애아들의 정서·감각 영역을 지원하기 위한 문화여가활동(문화체험 및



직업재활시설·노인시설 운영 계획도

공연관람) 등으로 문화생활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또 연말에는 후원자와 자원봉사자를 모시고 ‘후원의 밤’ 및 ‘바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태운 사회재활팀장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동들이 졸업 후 마땅히 갈 곳이 없어 앞으로 아동들의 진로 문제와, 연령과 장애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며 “원예치료, 서각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원한지가 얼마 되지 않아 체육활동 등 생활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은 것을 안타까워했다.

성원 스님은 “지역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주거 및 일

상생활 지원·상담·교육·의료 등의 전문적인 재활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복지발전에 이바지하고, 도내에 불교계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장애인의 재활을 돕기 위한 직업재활시설과 65세가 되면 자광원을 퇴소해야 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시설 운영 계획도 갖고 있다.

자광원은 65세 미만 중증장애인 1~2급 판정을 받은 자가 대상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비수급장애인으로 실비입소를 희망하는 자가 이용할 수 있다.

문의=738-5055.

〈조순옥 명예기자〉

제주시 노인공동작업장 생상품 인기

제주시 관내 노인공동작업장이 노인들의 건강과 소일거리에 도움을 주고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노인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소일거리 제공 등을 위해 8개의 공동작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 112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도1동과 삼도2동 푸른교실, 용담1동 공동작업장에서는 수의와 상복을 만들고 있으며, 도남동과 도련2동, 연동 공동작업장에서는 유휴지를 활용해 콩, 대두, 대과를 재배하고 있다.

제주시노인회 산하 노인실버봉사단은 제주 토종 콩을 이용해 재래식 된장과 간

장을 생산하고 있으며, 도련1동 공동작업장은 수수빻자루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이들 공동작업장에서 생산하는 각종 제품과 농산물은 소비자들로부터 인기가 좋아 물량이 달릴 정도로 주문이 쇄도하면서 회원들의 소득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제주시는 제품의 판매망 구축을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한편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즐겁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공동작업장에 많은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사회적기업 육성 ‘시동’...육성위원회 출범

제주지역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시동이 걸렸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사회적기업 육성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가 10월 20일 출범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사회적기업 육성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평가하고,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하게 된다.

위원들은 이날 ▲예비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완화를 통한 참여분위기 확산 ▲예비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과정 운영 ▲청년창업 프로그램 운영 ▲

평생교육원을 통한 대도민 교육 ▲대기업과 연계한 기업 발굴 육성 ▲전담조직 또는 자원센터 설치 검토 등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제주도는 위원들의 의견을 검토해 수정 계획안을 마련하고, 민선 5기 공약목표인 사회적기업 100개 육성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하민철 제주특별자치도 의원과 양은심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협의회장 등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가족 소중함 되새겨요”가족한마당 큰잔치 열려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소장 강철남)는 10월 9일 제주중앙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위탁부모와 위탁아동, 자원봉사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0 가족한마당 큰잔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명랑운동회, 가족사진 촬영, 장기자랑 페스티벌, 비보이 공연 등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다.

행사에 참여한 한 어린이는 “학교생활을 핑계로 할머니께 무관심했던 것 같다”며 “할머



니가 환하게 웃는 얼굴을 보며 앞으로는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겠다”고 다짐했다.

자원봉사자는 “아이들의 환한 웃음 속에서 행복을 보게 됐다”며 “그 동안 편견 속에 갇혀 있던 내 자신이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청암기업, 무료 전기용량증설공사

청암기업(주)은 아노제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어르신들의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 행복이야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무료로 전기용량증설공사를 완료했다.





은빛어르신 한마당잔치

서부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종범)은 10월 19일 한림체육관에서 어르신 1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8회 은빛 어르신 한마당잔치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 어르신들은 그동안 마을과 경로당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평소 익힌 솜씨를 마음껏 선보였다.

특히 3개 지역 마을별·노인회별 경연대회를 통해 갖고 닦은 장기자랑을 뽐내며 서로간의 화합과 우정을 다졌다.

식전 행사로는 해군군악대 공연과 평양예술단 공연, 애월초등학교 더덕분교 난타팀의 공연이 이어졌다.

이번 행사는 노년기 삶의 활력을 찾고 주민들에게 경로효친 사상과 연대감을 심어졌다.

22개 기관 1만5000명 참여

청소년활동 활성화기여

청소년들의 재능과 기량을 마음껏 펼친 '2010 청소년문화존'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소장 허철수)는 4월 24일 청소년문화존 선포식을 시작으로 10월 9일까지 매월 첫째·둘째·셋째 토요일에 총 21회 청소년문화존을 운영했다.

청소년시설·단체, 학교 등 총 22개의 운영기관, 1만 5000여명이 청소년문화존에 참여했고, 댄스·밴드·난타공연, 음악출렁기, 탈춤, 발마사지, 감귤향수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을 만나왔다.

참여기관들은 매주 특색있는 주제로 청소년문화존을 운영하고,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청소년들이 마음껏 끼를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청소년활동 활성화에 크게 도움을 줬다.



특히 올해에는 '찾아가는 청소년문화존'을 세화, 함덕, 한림, 고산지역에서 운영해 지역적으로 소외받는 농어촌 청소년들에게 청소년활동거리를 제공하고, 도농간 청소년들의 교류기회를 마련해 지역의 청소년들은 물론 학부모와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관계자는 "청소년 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시민들도 청소년문화존의 개념을 이해하고 많이 참여하는 등 청소년문화존에 대한 인식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면서 "내년에도 청소년들의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과 만나고,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청소년문화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참여기관 명단〉

한국관광정보진흥회 제주지부, 제주 시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연합, 제주시교육청, 빛사랑 청소년회 제주지부, 제주 YMCA, 국민생활체육 제주시 출납기연합회, 신산청소년문화의집, 신산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제주흥사단, 아라중학교, 신성여자중학교, 화북초등학교,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제주시청 소년수련관, 한림고등학교, 한림청소년문화의집, 제주여자중학교, 오현중학교, 제주 동중학교.



'플라워샵 푸른세상' 오픈

장애인보호작업장 일배움터(원장 최영열)가 LH제주지역본부(본부장 강명현)의 후원으로 10월 13일 아라LH아파트 단지내 상가에 화훼전문매장 '플라워샵 푸른세상'을 열었다.

일배움터는 2008년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으며, 우리마트 신제주점과 도남점, 아름다운가게 전국매장, 온라인전문매장 G마켓 등에 장애인생산을 납품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지원센터제주특산물코너에도 입점했다.

제주애덕의집의 길ტი공연으로 시작된 오픈 행사는 아라어린이집의 난타공연 등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축하한마당이 인상적이었다.

한편 '플라워샵 푸른세상' 오픈 행사는 아라LH아파트관리사무소를 비롯한 아라동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플라워샵푸른세상추진위원회를 통해 진행됐다.

소/식/마/당

송죽원, 일본문화탐방 실시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송죽원(원장 김금지)은 10월 9일부터 2박 3일 동안 자립생활여행으로 일본문화탐방을 실시해 한신대지진의 흔적을 그대로 보존해 놓은 메모리얼파크와 지진방재센터 등을 방문했다. 참가자들은 이번 여행을 통해 자립능력을 평가하고, 양국의 문화를 비교해 보는 소중한 경험을 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연수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회장 박광수)는 9월 28일부터 이틀간 새마을금고연수원에서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역량강화 등을 위해 2010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연수회를 개최했다.

연수에서는 장애인거주시설 최저서비스 기준을 중심으로 장애인들의 의사소통, 욕구사정에 초점을 맞춘 교육이 이뤄졌다.

가롤로의집, 도정신문 발송작업



가롤로의집은 직업재활활동으로 7월부터 월 2회 제주도청 홍보지 '다이나믹 제주' 발송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도정신문 발송작업은 취업이 어려운 이용인을 대상으로 작업능력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고 있으며, 작업비는 직업재활에 참여한 이용인들에게 수당으로 지급되고 있다.

아라복지관, 2010 어르신 희망 나들이



아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조성태)은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본부장 문성돈)의 후원을 받아 10월 7일 아라동 지역 재가 영세 어르신 130여명을 모시고 야외 나들이를 실시했다.

어르신들은 유리의성, 낙천아름다운 자마음을 관람하며 사진도 찍고, 서부농업기술센터 잔디밭에서 미니올림픽, 풍물한마당, 노래자랑 등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함께해요! 아름다운 동행 행복한 나들이



새마을교통봉사대 제주지역대(대장 좌창신)는 9월 30일 혜정원 아가의집 생활인 40명과 함께 삼국지랜드, 미니랜드, 아트랜드 관람 및 체험 등 '함께해요! 아름다운 동행 행복한 나들이'를 진행했다. 새마을교통봉사대는 살맛나는 공동체 운동인 happy korea 운동을 전개하고 맛있는 점심을 제공했다.

직원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서귀포시독거노인복지서비스one-stop지원센터(관장 임철남)는 10월 14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명도암 유스호스텔에서 노인돌봄비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직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서는 직업윤리와 공동체의식 함양에 대한 교육과 공동체미션수행 게임, 단체 철인8종경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종달유소년 FC에 축구용품 후원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경희)은 10월 1일 구좌읍 종달초등학교에서 열린 종달리 유소년 FC 창단식에서 종달리 유소년 FC 축구교실을 담당할 종달지역아동센터(시설장 한재민)에 200만원 상당의 축구용품과 유니폼을 전달했다. 축구용품 등은 KRA 제주경마공원이 후원한 공익성기부금으로 마련했다.

창단 행사 후 종달 유소년 FC는 해바라기지역아동센터(시설장 박미란)에서 운영하는 구좌 FC와 친선경기를 갖는 등 구좌읍 유소년 축구리그 활성화를 위한 첫 단추를 꿴다.

이번에 창단한 종달리 유소년 FC는 2008년부터 구좌읍 관내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제관리사업을 펼치고 있는 '이루다사업단(운영기관 :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네트워크사업의 결실물이다.

“인터넷 세상 차별 해소 앞장”

웹와치사업단 출범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 부설 웹와치(Web Watch)사업단(대표 고현수)은 고용노동부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장애로 인해 웹 사이트에 접근해 이용하지 못하는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 웹 사이트의 웹 접근성 진단 및 컨설팅사업을 시작했다.

웹와치사업단은 10여명의 장애인들이 IT실무능력을 기반으로 제주지역 웹사용 환경 개선사업과 정보소외계층의 정보접근권 확보를 주 업무로 하고 있다. 또한 웹사이트를 평가하는 평가지침도 웹전문가나 개발자들의 기준에 덧붙여 어르신과 장애인의 사용자 입장에서 평가함으로써 실질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웹와치사업단은 사회적기업으로의 발전을 지향해 제주지역 장애인기업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하는 시도”라면서 “어르신이나 장애인들이 사회에 적응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사회와 환경이 변해

야 하고, 그들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힘쓰는 것이 그 사회의 문화적 수준을 평가하는데 올바른 척도”라고 밝혔다.

한편 웹와치사업단은 9월 29일 제주북초등학교 강당에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설명회와 함께 웹와치사업단 개소식을 가졌다.

개인긴급지원사업 2억8900만원 지원

제주공동모금회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박찬식)는 올해 들어 사고나 질병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개인긴급지원사업’을 통해 모두 197건 2억8900여 만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9월말 현재 지원된 세부 내역은 의료비 89건 1억 4932만7230원, 주거비 76건 1억2274만5000원, 생계비 32건 1722만 4240원 등이다. 올해 총 지원예산은 4억5000만원이다.

‘개인긴급지원사업’은 각종 재난 및 재해, 질병, 주소득원의 사망 등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가정에 시급한



생계·의료·주거비 등을 긴급 지원함으로써 생활에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개인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정은 각 지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은 공동모금회의 현장심사 및 배분분과실행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된다.

박찬식 회장은 “작은 나눔의 정성이 모여 큰 도움이 손길이 이뤄지듯 도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귀중한 성금을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행복한 가족, 추억 만들기

제주장애인요양원(원장 정석왕)은 10월 9일 입소 장애인과 가족, 직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공원에서 하늘이의 가족나들이 ‘행복한 가족, 추억 만들기’ 행사를 진행했다.

가족들만의 추억 만들기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가족과 함께 하는 레크리에이션을 비롯해 가족사진촬영, 사랑의 케이크 만들기, 보물찾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10월 식품 기탁자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삼다수 2ℓ 1800개, 감귤주스 150ml 1000개 ▲(주)금강축산유통=육류 261kg ▲서문식품=두부 336모, 콩나물 140봉 ▲김치원=김치 40kg ▲심상부식=김치 40kg ▲약천사 신도 일동=쌀 400kg ▲고용법=김 3상자

알/림/마/당

■ 道노인보호전문기관 무료연극공연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김선희)이 노인학대 예방과 노인연극문화 증진을 위해 운영하는 노인연극단 ‘3기 빛누리실버연극단’이 찾아가는 무료 연극공연을 11월에 실시한다.

11월에 공연할 연극 ‘동행(작·연출 김광흡)’은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에 일어나는 내용을 다뤘다.

■ 어린이인형극단 Little Star 진행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김운영)은 서귀포시 양성평등지원과 드림스타트센터의 지원으로 아동성폭력예방 프로젝트 ‘어린이 인형극단 Little Star’를 12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서귀포 드림스타트 지역 내 4개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 실시하며 저소득 및 나홀로 방임아동에 대한 방과후 활동지원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또 MBTI 성격유형 검사를 통해 자아성찰 및 타인의 이해를 돕고 성격유형별 인형극 활동으로 ‘나+너=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고,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아동이 직접 참여하는 어린이 인형극단 활동을 통해 성폭력 예방의 효과를 극대화해 위기아동에 대한 안전망 구축과 위기상황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유도하고자 한다.

지적여성장애인 사회성향상 프로그램 운영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북부분관(분관장 김군택)은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박찬식)의 지원을 받아 2010년 4월부터 농어촌이라는 지역적 여건으로 인해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에서 제외되고 있는 지적여성장애인을 위한 사회성향상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북부분관은 여성장애인의 능력개발을 위해 비즈공예, 요리교실, 차밍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관리를 위해 위생관리교육, 무료스케일링,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했다. 또 효율적인 자기조절능력향상을 위해 개별상담과 함께 집단상담을 실시했다.

특히 가족 내에서 엄마역할을 강화하고 가족간 화목을 도모하기 위해 성교육, 도자기교실, 영화관람, 조개잡이체험 등



을 진행하는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북부분관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지적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자조모임을 구성, 상호지지체제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북부분관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제주관광대학,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김지순 요리제과전문학원, 혜정원 등과 연계 협약을 맺어 농어촌지역의 여성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연수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시설협회(회장 고치환)는 10월 21일과 22일 제주성안교회에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회를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1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했다.

연수회에서 참가자들은 노인요양보험제도 변화에 따른 정책방향과 장기요양기관 평가와 결과에 따른 향후 대응책을 모색했다.

또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한 어르신의 인권 및 호스피스, 중환



자케어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와 노인복지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상호간의 의견교환 및 토론을 통해 상호교류와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기회의 장을 마련했다.

제주복지관, NIE 프로그램 실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종합사회복지관(관장 경윤호)은 10월부터 매주 월요일 핑크드림도서관에서 지역아동들을 위한 NIE(Newspaper in Education)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핑크드림도서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신문에 실린 정보를 활용해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정보



력을 향상시키고 합리적인 사고와 문제해결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칼럼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지만...



김 범 훈
제주일보논설실장

국내외 작품을 통틀어 우리 국회의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정치드라마는 무엇일까.

미국 NBC가 1999년부터 2006년까지 7부로 나눠 방영한 '더 웨스트 윙(The West Wing)'이 압도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드라마는 미국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관이 근무하는 백악관 서관(西館)을 지칭하는 웨스트 윙을 배경으로 한다.

최근 정치드라마 안방극장 강타

가상의 민주당 대통령 집권기의 뒷모습과 참모진들이 고군분투하는 과정을 리얼리티하게 잘 살려냈다는 평이다. 야당인 공화당에서 이야기하는 주장을 무시하지 않고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

가는 아름다운 드라마로도 평가 받는다.

TV아카데미상인 에미상을 4년 연속 수상한 이유를 꼭히 알만하다.

이 드라마는 한국에서도 인기다. 청와대를 비롯해 많은 정치인들이 이를 통해 정의롭고 책임감 있는 정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얻는다고 한다.

그렇다면 한국의 정치드라마를 통해 바른 정치를 배운다는 국회의원들은 얼마나 될까.

단 한 사람도 없다 한다면 지나친 억측으로 비난받을 지 모를 일이다.

그동안 정치드라마는 시청률 조사에서 1위를 달려왔다. 하지만 정작 정치인들에게는 인기가 없었다고 한다. 사회비평가들은 가장 큰 이유로 사실성이 너무 떨어지는 점을 든다. 정치권에 대한 부정적인 스펀들과 권력압투에만 집중하는 경향도 주요 요인으로 꼽는다.

이와는 달리 정치드라마가 서민들에게 인기를 끄는 이유는 역설적이다.

서민들이 정치에 대해 당연히 바라고 있는 것을 드라마는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서민들은 비전도 희망도 없는 현실정치에 신물이 나 있다. 하지만 드라마

속 주인공은 가려운 곳을 긁어준다. 막힌 속도 통쾌하게 풀어준다. 카타르시스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요즘 SBS의 수목드라마 '대박'이 안방극장을 강타하고 있다.

한국사회 금기 깨는 상상력 공금

그래서인지 정치권은 물론이고 경제계와 사회 지도층까지 긴장하고 있다. 현재를 배경으로 이들의 부정적 커넥션에 날리는 직격탄에 시청자들의 공감대는 확산되는 양상이다.

특히 드라마가 호기심을 자극하며 인기몰이를 하는 것은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 탄생을 그리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정치드라마가 그랬듯 이, 현존하는 정치인과 극중 주인공이 겹쳐지면 정치적 논란을 낳기 마련이다.

이를 두고 정치인들은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라고 애써 강조한다.

그럼에도 최초의 여성 대통령은 상상만으로도 가슴을 설레게 한다. 상상력은 풍부할수록 좋다. 정의로운 사회구현과 함께 한국 사회의 금기를 깨는 상상력을 어떻게 그려 나갈지 드라마 전개가 궁금하다.

시론

명함(名銜)과 인연



문 익 순
제주도환경자연연구원기획조정실장

명함이란 상대방에게 자기의 이름과 주소, 신분과 직업, 연락처 등을 알리는 종이쪽이다. 우리나라 최초로 명함을 사용한 사람은 민영익으로, 구한말(舊韓末) 자국을 대표한 외국사절단으로 구미를 순방할 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한말, 농경사회의 시대적 상황에서 명함을 사용한 것은 과히 해안을 가진 선구자적 시도가 아닐 수 없다.

요즘처럼 사회가 분화되기 전에는, 명함은 비교적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나 직장인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필자도 명함을 처음 사용한 기억은 1980년대쯤인 것 같다. 짧은 연륜(年輪)에 사회적 지위도 높지 않았으니 명함의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했던 게다.

현대사회에서 명함은 자신의 신분과 직장뿐만 아니라 영업을 홍보하고 관촉하는 수단매체로까지 쓰이고 있다. 명함사용은 보편화되었지만, 사회적 지위나 직업, 그 사람의 개성과 활동영역에 따라 사용처는 다를 터.

필자도 오랜 공직생활에서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 여러 사람들과 조우할 때 많은 명함을 주고받았다. 받은 명함들은 짐이 될 때도 있지만, 확실히 신분이 달라진 명함 말고는 함부로 버릴 수가 없다. 재회의 기약 없는 인연이지만, 그 때 그 시절의 추억을 망각의 늪으로 내던지는 것 같아서 말이다.

사람의 개성만큼이나 다양한 디자인의 명함들, 상대로부터 받은 명함들은 내가 걸어온 발자취의 징표나 다름없다. 공직이라는 외길 인생사의 정점에 가까워져 그럴까, 가끔씩 명함을 들여다보며, 잠시 상념에 잠기는 시간이 잦아졌다. 직장업무에 관련된 명함들이 대부분이지만, 명함을 보고 있노라면 아련한 지난시절이 불안개처럼 피어오른다. 우리가 사는 사회,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들. 지금까지 조우했던 관료, 언론인, 금융인, 사회, 환경, 관광, 청소년, 사회복지단체의 관련종사자, 외국인 등. 그 중에는 흘러간 긴 세월의 뒤안길에 묻혀버린 빛바랜 명함도 더러 있다.

컨벤션조직에 근무할 때는 국제회의유치로 해외출장기회가 종종 있어 많은 외국인으로부터 명함을 받았다. 나라가 다르고 제도와 풍습이 달라 언어소통도 안됐지만, 공통된 비즈니스를 공감했던 시절이다. 공무상 출장이나 여행길, 타관에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모두가 직업전선에서, 혹은 봉사의 현장에서 각자 본분을 다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잊혀져가는 사람들이지만, 인생여정에 녹아있는 세월의 흔적이 명함을 통해 주마등처럼 투영된다. 지난시절을 회상하며 세상사의 소중한 인연을 생각한다. 회귀할 수 없는 과거는 내면에 자리하고, 더러는 세월의 무게를 더하며 망각의 늪으로 사라지겠지. 그 때, 그 사람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는지, 상념에 잠기는 율씨년스런 날씨에 회미한 가을태양이 어둠을 향해 가뭇없이 사라졌다.

기고

나눌 수 있는 당신은 행복한 사람



고 태 언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 사무처장

우리는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 내가 힘들 때 우리 이웃이 위로의 말을 건네 주고, 우리 이웃이 힘들 때 주변 사람들이 찾아가서 도움을 준다.

이처럼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세상이야말로 살만한 가치가 있는 세상이다. 그래서 우리 주변을 돌볼 수 있고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다. 이들이야말로 지역 사회를 건강하게 가꿀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이다.

이들처럼 나눔을 함께하는 세상이야말로 우리들의 인간의 삶을 높은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지난 9월 청와대에서 열린 제

39차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이명박 대통령은 나눔 문화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면서 미국의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처럼 (기업인) 개인이 나눔 문화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운동에 동참 실천을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선진사회로 가기 위해, 특히 공정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가진 사람의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업의 진정한 기부도 필요하지만 회사 돈을 내라는 것이 아니다. 재능이든, 노력이든, 자원봉사는 갖고 있는 재능을 나눌 수 있는 리더들이 나눔 문화가 필요하다. 이처럼 마음과 행동으로 직접 실천하여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는 이들이 이외로 많다.

평생 시장 행상으로 모은 재산을 동향 후진 양성을 위해 대학교 장학금으로 기부하거나, 어려운 이웃환경에 있는 가족 수술비를 마련해 전달하는 택시기사님, 심장병어린이 돕기에 참여하는 어린 기부천사 등 이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렵게 모은 재산들을 사회에 기부하는 아름다운 기부천사들이 있어서 우리들에게 잔

잔한 감동과 희망을 주고 있다.

이처럼 따뜻하고 아름다운 천사들이 있어 아직까지는 살만한 세상이 아닌가 한다.

아름다운 나눔에 실천은 자신에게는 따뜻한 에너지와 지혜로움을 배울 수 있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 사귄 수 있으며, 또한 정신 건강에도 매우 좋다고 한다.

이처럼 아름다운 동행은 말로 우리들이 자신의 삶을 가치로 느끼게 되고, 지역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으며, 항상 언제든지 이웃들과 함께하는 연을 맺을 수 환경을 만들 수 있다.

제주에서도 노블레스 오블리주 바람이 불어 따뜻한 나눔의 온도가 높아져 가고 있다. 다가오는 추운 계절에는 따뜻한 나눔에 생각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이웃들이 많아 졌으면 좋겠다. 나눔에 생각을 실천하면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제주사회복지신문은 독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과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변의 숨은 일꾼과 아름다운 이야기 등을 알려주시면 적극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2010년 9월 후원금 현황

(단위: 원)

구 분	후원금수입	후원금 사용내역
재가결연후원	710,000	710,000
난치병환아후원	80,000	0
자원봉사후원	460,000	460,000
복지사업후원	1,205,000	2,458,000
푸드마켓후원	16,885,000	540,420

* 후원자님들이 보내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 '희망복지 제주만들기' 정책토론회

“장애인 조례 제 · 개정시 주민 참여 필수”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고충홍)는 10월 8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도내 사회복지 종사자 및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관련 조례현황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희망복지 제주만들기'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본지는 정책토론회의 내용을 요약, 정리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고충홍)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는 10월 8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관련 조례 현황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사회복지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에 나선 고관용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과교수협의회 회장(제주한라대학 교수)은 “제주특별자치도가 보다 더 좋은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례 제 · 개정시 지역사회 복지관련 시설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제주도와 의회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현장의 목소리 없이 모두에게 유익한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며 “시민사회단체나 복지시설단체에서 의회와 협력해 조례 입법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례적인 협력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조례 입안시 공청회나 이해관계인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할 수 있으나 제주도에서는 거의 하지 않아 조례 제 · 개정 사실조차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사회복지협의회 등 사회복지계의 대표적인 시설단체에서 이런 내용을 제주도에 건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했다.

고 회장은 “조례는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주고도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주요한 도구”라면서 “아직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에는 많은 법제도적인 한계가 있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상당한 자치권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현장의 목소리 없이 유익한 조례 제정 못해 조례 입법 활성화 위해 협력시스템 구축 필요 박주희 의원 “장애인 삶의 질 높일 조례 제정”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도 제주특별자치도조차 중앙집권적 체제에 안주해 조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가 진정한 특별자치도가 되기 위해서는 제주도 뿐만 아니라 도민사회 전체가 조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 회장은 또 장애인 조례 제 · 개정운동의 방향을 제시했다.

고 회장은 “조례 제정에서부터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주민발의 형태 또는 의원발의 형태로 장애인복지 조례를 제 · 개정할 경우 반드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의원발의나 주민발의를 통한 조례 제 · 개정이 권리로서의 장애인복지를 주민 스스로 실현한다는 취지에 부합하고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탕으로 한 풀뿌리 민주주의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고 회장은 설명했다.

네트워크 형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고 회장은 “지역 시민사회단

체가 단독으로 조례 제 · 개정 운동을 추진하기 보다는 지역위원회 등을 구성해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동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하다”며 “사회복지전문가와 법률전문가, 지방의원을 적극 참여시켜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의회의 협조를 최대한 이끌어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를 제 · 개정할 때 조례 내용에 ‘정보공개’ ‘시민 참여보장’ ‘시민의 자기결정권 존중’ 등의 원칙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며 “관련 위원회 등을 구성할 때 선정기준을 정하고 공개적인 모집과정을 거쳐야 하며, 위원회 구성도 장애인 당사자와 사회복지 전문가 등이 직접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실효성 있는 조례 운영을 위해서는 관련 예산이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며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다’는 등의 임의조항이 아니라 ‘한다’ 등의 의무조항으로 두고, 예산도 특별예산이 아닌 일반예산으로 편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회장은 “조례의 시행규칙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

하는 점을 고려해, 조례 안에 기본적인 재원방안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시행규칙이 제정될 경우도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박주희 제주특별자치도의원(국민참여당)은 “조례로 위임받은 상위법령의 조문 대부분이 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것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과 직접 관련되는 부분은 거의 없다”며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서 볼 때 사회복지시설의 설치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등 관리감독에 있어 제주도의 특성을 살릴 수 있고 제도화할 수 있는데, 제주도는 시행령 준용 정도에서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례에 의한 조례 제정이든, 특례와 무관한 독자적 조례 제정이든 조례제정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절차에 인식해 절차적 형식

주의에 머물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의 조례가 제정돼야 한다”며 “빈곤의 문제, 여성장애인의 문제, 교육과 직업의 문제, 자기결정과 자기선택을 통한 자립과 사회참여의 문제, 이동과 접근성의 문제, 장애인가족의 갈등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민 · 관은 협력적 · 평등적 관점이지 일방적 · 지휘적 관점이 아니”라면서 “조례 제 · 개정 과정에는 협치적 관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외에 강덕화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은심 길직업재활센터 원장, 김상범 한국장애인연맹 제주DPI회장이 토론에 나서 장애인 조례 개선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Design is
another Salesman

디자인은

또 하나의 세일즈맨

좋은 디자인은 상품에
고유한 생명력을 불어 넣어 회사이윤의
극대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문화수준을 향상시킵니다.
디자인 열림은 창조적인 아이디어,
도전정신으로 뭉친
젊은 디자이너들로 조직화, 전문화된
능동적인 팀입니다.

DESIGN YEOLLIM

디자인열림

팜플렛, 카다로그, 브로셔, 리플렛, 정기간행물, 패키지 제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라3동 2730-4번지
tel. 82.64.746.0775 fax. 82.64.746.0774